

17대 대선 D-365 대선구도 5년전과 닮은 꼴

365일 대장정이 시작됐다. 17대 대통령 선거전이 19일로 꼭 1년 남았다. 대선을 1년 앞둔 정치권의 모습은 5년 전 16대 대선을 1년 앞둔 2001년 12월과 너무도 닮았다. 레임덕에 시달리는 정부와 여당, '이회창 대세론'으로 여권 후보를 앞세우던 야당 후보, 내분에 휩싸인 여당, 여당의 대통령 탈당 요구

등 닮은꼴은 많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표류하던 호남을 향한 정치권의 구애 행렬도 지난 대선과 유사하다. 40%를 넘는 당 지지율과 유력 후보군을 바탕으로 '대세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에 반해 여권은 한 자릿수의 참담한 지지율을 보이며 자중지란에 지리멸렬 상태다. ▶관련기사 3면

이번엔 어떤 선택?

지난 2001년 12월에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바닥이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70%대에 육박, 긍정적 평가의 두배를 넘었다. 대선 구도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독주 체제였다. 이 총재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적게는 15%P, 많게는 30%P나 앞서갔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달랐다. 바로 1년동안 발생할 수 많은 변수 때문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주요 변수로 범여권 정계개편의 향방, 노심(盧心)의 행방, 한나라당 박 3경선 구도 등을 들고 있다. 북핵과 경제 등 정책적 측면도 큰 변수다. 그뿐 아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등 여권은 '3김 시대 종식'에 따른 '정치개혁'을 모토로 '반장(反蔣) 연대'를 구축, 승부수를 띄웠다. 이는 현재 여권에서 추진중인 '반 한나라당 연대'와도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있다.

- ☑ 대통령 '레임덕'...興는 내분
- ☑ 여 지도부, 대통령 탈당 요구
- ☑ 야후보에 맥 못추는 여후보
- ☑ 호남 향한 정치권 구애 행렬

당시 민주당은 정치개혁이라는 시대 정신을 확보했으나 현재의 여권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시대적 화두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여권이 어떠한 시대정신으로 정계개편을 이끄느냐는 대선 정국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당시 민주당은 계파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선제를 도입, 역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국민경선제 도입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계개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여권의 통합을 이끌어낼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개헌,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도 폭발력을 간직한 변수다.

호남 표심의 향배는 이번에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호남 표심이 결국 대선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을 끼쳤던 16대 대선 결과는 이번 대선의 반면교사다. 호남인의 선택이 선진한국 진입의 결정적 키를 쥐었다는 말이다.

오수열 조선대 정치학과 교수는 "호남인들은 특정 유력후보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표심을 미리 노출하지 않는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는 지역의 이해에만 얽매이지 말고 누가 21세기 한국을 선진강대국으로 이끄는 데 적합한 지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전남 비전21 이사장은 "과거 대선에서 호남인들이 민주와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선택했 듯이 이번에도 평화와 통일 등 시대정신을 찾아야 하겠지만 지역발전과 민생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자회담 재개

18일 오전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개막된 북핵 6자회담 본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우다웨이 중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올해의 사자성어 密雲不雨 (밀운불우)

2006년 한국사회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密雲不雨'(밀운불우)가 선정됐다. 교수신문이 5~11일 교수신문 필진과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교수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를 풀이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전체의 48.6%

교수신문 선정 '폭발 직전의 답답함'

가 '密雲不雨'(밀운불우)를 꼽았다.

'밀운불우'란 '구름은 백백하나 비는 오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여건은 조성됐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을 뜻한다.

교수들은 상생정치의 실종, 대통령 리더십 위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 치솟는 부동산 가격, 북한 핵실험 등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 정치·경제·동북 등 시대상정신을 찾아야 하겠지만 지역발전과 민생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운불우'에 이어 '矯角殺牛'(교각살우), '萬事休矣'(만사휴의) 등이 선정됐다./연합뉴스

北 “핵군축 회담 불가피”

美 “인내심 고갈”...6자회담 첫 회의 충돌

북한과 미국이 18일 13개월 만에 열린 6자회담 첫 회의에서 현격한 의견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다.

협상에 정통한 북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특히 이른바 '핵폐기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 등 현안에 대한 접점없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핵군축 회담 불가피'(북) 주장에 '인내의 한계 초과'(미)로 대응하는 등 신경전을 더욱 가열시켰다.

이처럼 6자회담의 핵심 당사국인

양측의 의견차가 노정됨에 따라 13개월 만에 열린 6자회담이 상당한 우려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2단계 1차 전체회의의 수석대표 연설에서 현 단계에서 핵무기 문제 논의를 하고자 할 경우 핵군축회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또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 및 9·19 공동성명 이후 시행된 유엔제재 등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공동성명 이행방안 논의의 개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음을 강조한 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맞받아쳤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미·북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준비가 되었으나 이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시에만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북한과 미국의 양자회담은 이를 연속 불발됐다. BDA 실무회의는 19일 북한의 재무전문가들이 도착한 이후 열릴 예정이다. /세이정-연합뉴스

“문화수도 기획단 설치해 달라”

송재구 위원장 건의...문광부 “법적 근거없어 불가”

송재구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조성위의 집행 기능을 담당할 사무국 성격의 '기획단' 설치를 골자로 한 시행령안을 문광부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문광부는 조성위 내부에 기획단을 두는 것은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조성위의 집행 기능을 둘러싼 송 위원장과 문광부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송 위원장은 금명간 김명곤 문광부장관을 만나 조성위의 업무를 전담할 기획단 설치 등을 담은 조성위 안을 전달하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에 대통령 접견을 통해 시스템 보완을 위한 조직 개편 차원의 기획단 설치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기획단은 7~8명으로 구성되며, 현 문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단의 인원을 우선적

으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의 이같은 건의에 대해 문광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문광부가 내놓은 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조성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조성위에 간사 1명만을 두되,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토록 규정했다.

문광부는 심의기구인 조성위 내부에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특별법에서 규정할 사항이지 시행령에서 다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양지축은행 56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msu.ac.kr
세미나당에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jcnu.ac.kr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 큐

100년의 사람 - 부채표
동화약품

최수연 김동원